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전공과대학(케프텍·Kepco Tech)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글로벌 컨설팅 용역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한국전력은 'A.T.Kearney(AT커니)-삼우건축 공동수급체'를 한전공대 수립용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 컨설팅 용역사와 국내 건축사가 분담 이행방식으로 진행된 용역사선

한전공대 설립용역 우선협상자 'AT커니'

한전, 기술·가격협상 거쳐 이달 중 계약체결

정 국제경쟁 입찰에는 2개의 공동수급체가 참가했다.

한전은 대학교육과 에너지산업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AT커니-삼

우건축 공동수급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정식 컨설팅용역 계약체결은 기술·가격협상을 거쳐 이달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전공과대학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글로벌 컨설팅 용역은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용역기간동안 대학설립의 타당성과

기본계획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수립된다.

한전공대는 한전이 설립초기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조성하고, 학생의 자율성은 최대화하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로 미국의 실리컨벨리와 경쟁하는 공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이 5,000여억원을 들여 150만㎡ 규모로 설립 예정인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권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영남권의 포항공과대학(POSTECH)에 버금가는 대학을 만든다는 것이 기본 복안이다.

한편, 용역사로 선정된 'AT커니'는 1926년 미국 시카고에 설립됐다. 현재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 40개국에 62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서미애 기자

전남도, 섬 마케팅 쟁점

'섬의 날' 기념행사·컨퍼런스 등 주력

전남도가 매년 8월 8일이 '섬의 날'로 확정됨에 따라 첫 기념행사와 지구촌 섬발전 컨퍼런스 개최를 준비하는 등 섬 마케팅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하는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섬의 날은 지난 2016년 전남도가 국가 기념일 제정을 제안한 이후 2년이 맺은 결실이다.

전남도는 2016년 9월 당시 이낙연 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해 제정 추진에 급물살을 탔다.

개정된 도서개발촉진법은 9월께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는 2019년 8월 8일 개최될 예정이

다.

전남도는 섬의 날 제정을 계기로 관광·생태·문화 자원의 보고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섬의 가치가 재조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경 서남해안 갯벌과 해양생태자원, 해산물 홍보를 통해 섬 관광 활성화는 물론 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섬의 날 제정은 도의 역점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섬관광객 증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19년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와 지구촌 섬발전 컨퍼런스가 전남에서 개최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FC 홈 개막전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3일 오후 서구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8 KEB하나은행 K리그2 광주FC와 FC안양의 홈 개막전에 참석, 광주FC 선수단을 격려한 뒤 이은방 시의회장, 장휘국 시교육감, 정원주 광주FC 대표이사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에 '귀어학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4일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 기술 교육을 받고 체험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 귀어학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귀어학교의 사업비는 총 10억원으로,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올해 안에 기숙사 건립과 교육시설을 구비해 2019년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은 분기별로 2개 반 20명으로 편성해 이론 및 기술교육, 현장체험 등으로 추진된다.

교육인원은 교육신청 귀어인 수에 맞춰 점진적으로 늘리고, 강진으로 이전 예정인 전남도 공무원교육원과도 연계해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근산 기자

호남고속철 불편은 '연계 대중교통'

광주전남연구원, 이용객 1천명 대상 설문조사

광주·전남 고속철도 이용객은 연계 대중교통 수단과 역사 내부 편의시설에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5일 KTX와 SRT 호남선 이용객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시 불편사항으로 대중교통수단 불충분(15.3%), 역사 내 편의시설 부족(14.4%), 주차불편(11.8%) 등이 주로 꼽혔다. 역까지 교통비 과다(10.6%), 역사 내부 안내시설 미흡(8.0%), 주변 교통혼잡(7.8%) 등이 뒤를 이었다.

2016년 조사에서는 대중교통 불충분, 주차불편, 역사 편의시설 부족 순이었다.

고속철도 개통효과로는 거주지역 이미지 상승(5점 척도에 3.23점), 지역간 균형발전(3.04점), 지방도시 이미지 상승(2.95점), 타 도시 제품·서비스 구매 용

이(2.89점), 지역 문화활동 기회 증가(2.87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용목적은 가족·친지·친구 방문(42.3%)이 가장 많았으며, 관광·휴가(38.7%), 업무·출장(13.6%) 등이 많았다.

전년도 조사와 비교해 관광·휴가는 21.1% 포인트 늘었으며 업무·출장은 11.4%포인트 줄었다.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 주요 기차역 이용객은 광주송정역이 1,152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포역(596만명), 순천역(335만명), 여수엑스포역(251만명), 나주역(141만명)이 뒤를 이었다.

/조기철 기자

민원·생활불편 정보
☎720-1050

"첨단3지구 폐기물시설 건립 안해"

광주시, 주민 반발에 토지이용계획 대폭수정 폐기물 발생량 1만이하 줄이는 방식 채택

광주시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첨단3지구 내 환경기초시설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수정기로 했다.

광주시는 4일 첨단3지구 토지이용계획을 대폭수정, 산업용지를 줄이고 연구용지를 늘려 아예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고 5년간 광주와 전남 주요 기차역 이용객은 광주송정역이 1,152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포역(596만명), 순천역(335만명), 여수엑스포역(251만명), 나주역(141만명)이 뒤를 이었다.

애초 토지이용계획 용역에서는 폐기물이 연간 3만5,000t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광산구 비아동에 처리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주체인 광주도시공사와 용역사가 재검토한 결과,

연구용지는 39만㎡에 61만㎡으로, 산업용지는 93만㎡에서 52만㎡로 조정하면 폐기물 발생량을 1만t으로 낮출 수 있어 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할 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예정 위치에서 장성 나노산단 인근으로 1km 가량 옮기는 것으로 조정했다.

대신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시설로 만들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환경기초시설 입지를 놓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북구 월출동·광산구 비아동·전남 장성군 남면 일대

에 산업단지 주거사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부지 규모만 380만여㎡에 달하며 1조 217억원을 투입, 2단계로 나눠 2025년까지 조성한다.

정부연구개발특구인 만큼 광기반 융복합, 차세대 전지, 친환경 자동차부품, 스마트케어 가전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용역을 수년간 진행해왔지만 그 결과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바뀐 데다 기존 용역내용을 지지하는 장성군의 반발, 관련 인허가 승인관할을 가진 국토부 등 정부 부처의 수용여부 등은 변수다.

광주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토지수요 발굴과 다각적인 분석결과 폐기물 처리시설 없이 추진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결정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우치동물원, 시민참여 프로그램 특화 운영

광주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올해 시민이 참여하는 '동물생태해설사와 동물원 한바퀴 체험', '동물원 직업탐방교실', '방학 야생동물 생태교실'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물생태해설사와 동물원 한바퀴 체험'은 3-5월과 9-11월, 6개월 동안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2회 진행되며, 우치공원 홈페이지 또는 현장신청이 가능하다. 6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회당 최대 20명이다.

동물생태해설사는 전년도에 활동한 해설사 5명 중 3명을 재위촉하고, 올해 2명을 새로 선발했다. 위촉된 5명의 해설사는 동물원 전역을 돌며 다양한 야생동물의 생태를 설명하고 우치동물원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동물원 직업탐방교실'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가직업군인 수의사·사육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다. 올해는 4-5월, 9-10월 4개월간 총 8회가 진행된다.

/조기철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자치평론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jnreviews@daum.net

전남매일 일간 자치평론
구독문의 062) 720-1006

▲상표등록번호 40-102809 ▲영양성분표준 제2010-00026호 ▲동부화학 1억 원 생산설비상업보합-중편번호 440130002705000

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드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역시!

"씨알-렉스"

제조원(주)농협법인(주)고려홍삼공사

자주먹으로 확인된 제품! 남자가 먹는 씨알-렉스가 골로더 강령해줍니다. 체력이 직격으로 어디에 좋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드신 분들은 조용히 자주먹으면 체력을 확실히 주실 겁니다. 진짜 드십시오. 본 제품은 약이름, 허약이름이 아닙니다. 천연식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허청에서의 상표권 취득으로 더 안전하게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148,000원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행사

080-374-5046 보람약품 062) 528-6662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만
근조화환 3만

경조화환 6만원

시외 기피외지역 추가비용 발생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병성 302-0316-649511

전국 임야

덕남동 -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20만원 (평당)
- 문의. 010-3605-5000

바로합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